



비일상적인 경험에서 얻은 예술

전쟁과 문학

한수영 · 문학평론가

한국전쟁이 막 끝났을 때, 말만듣기 좋아하는 어느 외국의 비평가가 이렇게 예언했다고 한다. "이제 다음번 노벨문학상은 한국 작가의 몫이다." 이 장담은 결국 빗나가고 말았지만, 한 차례의 전쟁 경험에서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은 영감과 소재를 얻게 되는가를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말이다.

예술적 소재로서의 흡인력

전쟁은 인간이 유지하는 일상을 단번에 뒤죽박죽으로 헝클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비일상적 경험이다. 그러므로 안정된 일상 속에서 인간이 유지할 수 있었던 일체의 제도적 규범과 윤리, 약속의 체계와 인간적 품위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생존을 위한 '게임의 법칙'의 수준으로 퇴보한다. 따라서 일상이 유지되는 동안 결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든 비인간적 일탈과 반문명적 폭력이 일시에 증폭된다. 그와 동시에, 전쟁이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보다도 고도로 정치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모든 전쟁에는 뚜렷한 명분과 확실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어느 한쪽에 속해 있는 한, 그 명분과 정치적 질서에 복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궁극적으로 그 이유와 명분은 '전쟁에 이겨야 한다'는 것에 귀결된다.

그러므로 전쟁이란 한편으로는 일상의 안정된 질서를 순식간에 뒤죽박죽으로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만든 명분과 정치적 질서에 속박 당하기를 강요하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상황인 셈이다. 이 모순과 이중성 속에 인간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간으로서의 시험'에 맞닥뜨린다. 이것처럼 흥미진진하고 혼란스러우며, 절박한 동시에 분명한 것이 또 있겠는가.

문학과 예술이, 소설과 영화가 그토록 자주 전쟁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전쟁만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50년대 우리 소설은 이제 막 치른 전쟁에 대해 세가지 서로 다른 표정을 보여 주었다. 이십대의 젊은 작가들은 그들이 통과해 온 포연 속에서 허무하

게 무너져가는 기성의 질서와 권위를 보았다.

서기원의 <암사지도>나 한말숙의 <신화의 단애> 같은 소설은 전쟁 직후에 윤리적 일탈과 가치규범의 부재 속에서 혼란을 겪는 50년대 특유의 복잡한 표정이 드러나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된 일군의 젊은이들이, 새롭게 만난 '실존주의'를 매개로 심각한 표정으로 존재론적 질문을 던졌다. '인간이란 정말 고귀하고 가치있는 존재인가?' 전쟁을 치르면서 지켜 본 그들의 결론은 물론 '아니오'였다.

손창섭과 장용학의 많은 소설은 이 질문과 대답에 바쳐졌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인간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추악하고 왜소하며 불합리한 존재로 변할 수 있는가를 목격하고야 말았다. 많은 젊은 작가가 손창섭과 장용학 투의 존재론적 회의를 다소 호들갑스러운 몸짓으로 표출해내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나이 든 작가들이 노회(老獮)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들은 막 치러낸 전쟁 끝에 호들갑을 떠는 어린(?) 작가들에게 차가운 냉소를 보낸다. 그들에게는 전쟁조차도 또다른 일상의 연장일 뿐이라는 태연스러움이 있다. 김동리는 <실존무>에서 '실존주의'의 장단에 맞춰 우스꽝스런 춤을 취대는 젊은 세대들을 조롱한다. 김동리에게 전쟁이란 좀더 가혹하고 절박해진 상황 이상이 아니다.

김동리보다 한층 더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

분단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일상의 이 안정과 평화가 사실 '유예된 전쟁' 때문에 가능한 일시적인 것이라는 강박에 시달린다. 세계 어떤 이들보다 문학과 예술을 통해 제대로 전쟁의 본질을 깨닫고 이해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지니고 있다. 전쟁 미체험 세대가 늘어날수록 문학과 예술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각별하다.

쟁을 이야기하는 작가가 염상섭이다. <취우(驟雨)>라는 제목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나듯, 그에게 전쟁이란 한바탕의 '소나기'일 뿐이다. 소나기는 피하지 못하면 온몸이 흠뻑 젖고 말지만, 햇볕이 나면 다

시 마르는, 일시적인 악천후일 뿐인 것이다. 전쟁을 바라보는 염상섭의 시선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의 전후문학(戰後文學)에서 목도하는 이 세가지의 표정은 실상 전쟁에 대해 문학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그 이후에 전개된 우리 문학이 한국전쟁에 대해 취한 태도도 이 세가지 일반적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두가지 정도의 예외적인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다.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과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다. 두 작품 모두 전쟁문학이 흔히 빠져드는 관념적 편향이나 추상적 반전론(反戰論)의 한계를 제대로 극복한다. <무기의 그늘>은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도 정작 전쟁은 없다. 독자의 시선은 다량의 암시장과 군수물자의 암거래루트, 거래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군과 한국군과 베트남과 베트남 사이의 또다른 전선(戰線)을 따라 간다. 결국 독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거대한 장사판인 전쟁을 통해 누가 이익을 챙기는가의 여부다. 건조하고 차갑지만, 전쟁의 본질을 가장 설득력 있게 그린 작품 중의 하나다.

<태백산맥>은 다시 언급하는 것이 새삼스럽지만, 우리 문학이 오랫동안 빠져 있던 고질적인 병폐 두가지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뜻이 깊다. 하나는 정작 인간은 없고 이데올로기가 전쟁의 주체가 되어버린, 분단과 전쟁에 관한 그동안의 오랜 관념적 편향을 지워냈다

는 점, 다른 하나는 전쟁이 역사의 형성과 전개에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보여주려 했다는 점, 즉 전쟁이란 역사를 형성하는 투쟁의 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는 점이다.

전쟁문학의 궁극적 결론

모든 전쟁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훈은 언제나 한가지다. '인간이 벌이는 모든 전쟁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전쟁문학을 통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것도 사실은 단 한가지밖에 없다. 작품을 끝까지 다 읽고 책장을 덮었을 때, 독자의 뇌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인상을 얼마나 강렬하게 각인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쟁을 중요한 시공간으로 삼은 문학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도 궁극에 가서는 바로 이 잣대를 통해 이뤄져야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전(反戰)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반전의 논리는 종종 추상적인 관념으로, 또는 전쟁이 지닌 폭력과 파괴 자체에 즉자적으로 매몰될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유지하는 이 안정과 평화가 사실은 '유예된 전쟁' 때문에 가능한 일시적인 것이라는 강박에 항상 시달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분단체제를 끝장 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유예된 전쟁으로부터 비롯된 일시적 안정이 아닌 영구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세계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야말로 문학과 예술을 통해 제대로 전쟁의 본질을 깨닫고 이해해야 할 분명한 역사적 이유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전쟁 미체험 세대가 늘어날수록, 이들이 전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길은 결국 문학이나 영화와 같은 예술을 통한 간접체험의 경로 뿐이고, 그만큼 문학과 예술의 영향력과 역할도 커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문제의식은 좀더 각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